메밀꽃 필 무렵 내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허 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싫증은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치미를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흔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팔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 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붓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공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 밭께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 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 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주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팽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야. 짐작은 대고 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렷다."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허나 처녀의 꼴은 꿩 궈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어.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나지- 그러나 늙으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계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천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꺼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A]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틔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총각두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말게."

"처,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 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 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 어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 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는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랴 했으나 정말예요.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허 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 알렸다. 땀이 등을 한바탕 쪽 씻어 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의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 매고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런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 물은 ⓐ 뼈를 찔렀다.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적 변화를 암시하며 사건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낭만적인 자연 배경을 제시하여 인물들의 대화가 지닌 서정적 분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④ 인물 간의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부각하여 사건 전개의 긴박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서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직접 드러내며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02

윗글의 '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허 생원이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게 만드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밤길을 걷는 인물들의 정서를 고양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인물들의 대화가 격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배경적 장치이다.
④ 허 생원과 동이의 혈연적 관계를 암시하며 사건의 우연성을 필연성으로 전환한다.
⑤ 인물들이 처한 현실적 고난을 부각하여 장돌뱅이 삶의 비애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길'은 단순한 이동 통로를 넘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시간의 통로이자 인물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특히 허 생원에게 길은 성 서방네 처녀와의 단 한 번의 인연을 간직한 채 평생을 떠도는 운명적 공간이다. 한편, 동이의 등장은 허 생원의 과거가 현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며, 두 인물의 동행은 단절되었던 혈연의 확인이라는 서사적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때 자연 배경은 인물들의 내면을 투영하며 서사적 개연성을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① 허 생원이 평생 장돌뱅이로 지내며 봉평을 잊지 못하는 것은 길 위에서 맺은 인연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기 때문이겠군.
② 동이가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허 생원의 과거 이야기와 결합하여 두 사람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하겠군.
③ 고개를 넘으며 허 생원이 '나이가 알렸다'고 느끼는 것은 동이와의 동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정착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군.
④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 때문에 개울을 벗고 건너야 하는 상황은 두 인물이 신체적으로 밀착하며 혈연적 유대를 확인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하겠군.
⑤ 메밀꽃이 핀 밤길의 묘사가 허 생원의 이야기와 어우러지는 것은 자연 배경이 인물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서사적 개연성을 높이는 사례로 볼 수 있겠군.

04

윗글에 나타난 '허 생원'의 심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 선달이 자신의 이야기를 지겨워할까 봐 미안해하면서도 달빛에 이끌려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② 성 서방네 처녀와의 만남을 '팔자'라고 생각하며, 그 인연을 평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③ 동이의 출생 내력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 내심 놀라움과 의구심을 느끼고 있다.
④ 육체적인 노쇠함을 실감하며 젊은 동이에게 부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다.
⑤ 충주집에서의 실수로 동이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대화를 통해 그를 위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05

밑줄 친 ㉠과 ㉡의 문맥적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 주변 지형이 험난하여 / ㉡: 주변에 소문이 퍼졌다
② ㉠: 몸이 지치고 힘들어 / ㉡: 힘에 부침이 느껴졌다
③ ㉠: 이야기가 지루하여 / ㉡: 나이가 든 것이 드러났다
④ ㉠: 정신이 아득하여 / ㉡: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⑤ ㉠: 숨이 턱에 차올라 / ㉡: 연륜이 깊어짐을 깨달았다

06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각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자연 배경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인물의 대화 속에 과거의 사건을 삽입하여 현재의 서사적 공백을 메우고 있다.
③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한 밤의 분위기와 인물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세밀하게 제시하여 각 인물이 처한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고 있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사건을 전개하며 서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0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려했던 과거와 초라한 현재 사이의 괴리감을 촉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고된 여정 끝에 마주한 차가운 현실에 대한 인물의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③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지울 수 없는 삶의 근원적인 고독을 상징한 것이다.
④ 땀을 흘린 뒤에 느끼는 밤 물의 차가움을 통해 인물의 감각적 경험을 강조한 것이다.
⑤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해방감을 역설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0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조 선달은 허 생원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겉으로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② 허 생원은 달이 너무 밝아 옷을 벗기 위해 물방앗간으로 들어갔다가 처녀를 만났다.
③ 성 서방네 처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천으로 떠난 뒤 술집으로 팔려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④ 조 선달은 이번 가을까지만 장돌뱅이 생활을 하고 대화에서 전방을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⑤ 동이는 충주집에서 저지른 실수 때문에 허 생원에게 꾸중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사과했다.

09

[A] 구간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 변화를 통해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②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키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③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임을 밝혀 서사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④ 인물들의 대화가 중단되는 지점을 설정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여운을 남긴다.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시선 변화를 서술하여 배경의 상징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10

윗글의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허 생원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운명론적 관점에서 수용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② 조 선달은 허 생원의 이야기를 추임새를 넣듯 받아주며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고 있다.
③ 동이는 자신의 출생에 관한 비밀을 털어놓으며 허 생원의 이야기에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④ 허 생원은 동이의 젊음을 시기하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⑤ 조 선달은 장돌뱅이 생활의 고단함을 토로하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11

윗글에서 '허 생원'의 정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거에 대한 그리움 → 현재 삶에 대한 자부심 → 미래에 대한 희망
② 달빛에 의한 감동 → 추억에 대한 애틋함 → 노쇠함에 대한 쓸쓸함
③ 타인에 대한 미안함 → 인연에 대한 확신 → 이별에 대한 아쉬움
④ 유랑 생활의 고단함 → 정착에 대한 갈망 → 혈연에 대한 간절함
⑤ 자연에 대한 경외감 → 과거에 대한 후회 → 타인에 대한 연민

12

윗글의 '물방앗간'이 갖는 서사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허 생원이 사회적 규범을 어기고 일탈을 감행하는 타락의 공간이다.
② 성 서방네 처녀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하는 결단의 공간이다.
③ 인물들의 비극적 운명이 시작되는 곳으로, 평생의 한(恨)이 서린 공간이다.
④ 일상적 공간에서 벗어나 환상적이고 운명적인 인연이 맺어지는 공간이다.
⑤ 신분 차이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한계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1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동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천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
② 충주집에서의 소동 이후 허 생원에게 서운함을 느꼈으나 대화를 통해 이를 해소했다.
③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으며, 계집보다는 가족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④ 허 생원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단서를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다.
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상태이며, 이는 노쇠해가는 허 생원과 대비를 이룬다.

14

윗글의 결말부(개울을 건너는 장면)를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바는?

① 장돌뱅이들의 고달픈 유랑 생활에 대한 연민과 사회적 관심 촉구
②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물아일체의 경지에 대한 예찬
③ 과거의 인연이 현재로 이어지는 생의 신비로움과 혈연의 이끌림
④ 사라져가는 옛 풍속에 대한 향수와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에 대한 체념적 수용

15

문맥상 ㉠~㉤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① ㉠: 이번 일은 워낙 <u>대근한</u> 노릇이라 숨 돌릴 틈도 없다.
② ㉠: 그는 성격이 <u>대근하여</u>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③ ㉡: 멀리서 종소리가 은은하게 <u>알려</u> 왔다.
④ ㉡: 그는 이번 시험 합격 소식을 부모님께 <u>알렸다</u>.
⑤ ㉡: 찬 바람이 부니 비로소 가을이 왔음이 <u>알려졌다</u>.

메밀꽃 필 무렵 내신 문제지 · 정답 및 해설

01 서술상 특징 및 담화 분석

정답: ③ 낭만적인 자연 배경을 제시하여 인물들의 대화가 지닌 서정적 분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과 배경의 기능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③ '메밀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붓한 달빛'과 같은 낭만적인 배경 묘사는 허 생원이 들려주는 과거의 추억담과 어우러져 작품 전체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인물들의 대화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정서적 교감으로 이어지게 한다.

[오답 풀이]

① 배경 묘사가 인물의 심리와 호응하는 것은 맞으나, 사건의 비극성을 고조한다는 진술은 작품의 낭만적 성격과 거리가 멀다.

② 과거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인물들(허 생원, 조 선달, 동이) 사이에는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선명한 대립 구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서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02 소재의 상징적 의미

정답: ⑤ 인물들이 처한 현실적 고난을 부각하여 장돌뱅이 삶의 비애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출제의도]

주요 소재인 '달'의 상징적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⑤ 윗글에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흔붓이 흘리고' 있으며, '짐승 같은 숨소리'가 들리는 듯한 생명력 있고 낭만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이는 장돌뱅이 삶의 비애나 현실적 고난을 부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삶을 예술적이고 서정적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허 생원이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이라며 과거를 회상하는 계기가 된다.

② '소금을 뿌린 듯이 흐붓한 달빛' 등의 묘사를 통해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허 생원의 발언을 통해 달밤이 이야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④ 달밤의 정취 속에서 이어지는 대화와 정황(제천, 달도 차지 않은 아이 등)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복선이 된다.

03 [보기] 종합 감상

정답: ③ 고개를 넘으며 허 생원이 '나이가 알렸다'고 느끼는 것은 동이와의 동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정착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군.

[출제의도]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와 서사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③ 지문에서 허 생원이 고개를 넘으며 '나이가 알렸다'고 느끼고 동이 같은 젊은 축을 부러워하는 것은 육체적 노쇠에 대한 자각일 뿐, 이를 통해 동이와의 동행이 정착을 결심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정착에 대한 언급은 조 선달의 계획("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계와두 하직하려네")에서 나타날 뿐, 허 생원은 오히려 "난 꺼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라며 운명적인 유랑의 의지를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제시된 '운명적 공간'으로서의 길의 의미와 부합한다.

② 동이의 효심과 허 생원의 과거 추억은 '어머니/처녀'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다.

④ 개울을 건너는 행위는 이후 허 생원이 동이의 등에 업히는 장면으로 이어지며 혈연 확인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⑤ 낭만적 배경과 허 생원의 애틋한 추억담은 인물의 내면 투영이라는 보기의 설명과 일치한다.

04 인물의 심리 및 갈등

정답: ④ 육체적인 노쇠함을 실감하며 젊은 동이에게 부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다.

[출제의도]

인물의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허 생원이 고개를 넘으며 숨이 차고 다리를 쉬는 과정에서 '나이가 알렸다'고 느끼며 동이를 부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오답 풀이]

① 지문 초반에 조 선달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팔자에 있었나부지", "반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등의 표현에서 확인된다.

③ 동이가 제천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법이 세상에…"라며 야단스럽게 웃지만, 이는 내면의 동요를 감추거나 상황의 기막힘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충주집에서의 일로 동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달래는 대화가 [A] 구간에 나타난다.

05 시어·구절 의미

정답: ② ㉠: 몸이 지치고 힘들어 / ㉡: 힘에 부침이 느껴졌다

[출제의도]

고어 및 문맥적 어휘의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② ㉠ '대근하다'는 '힘에 부쳐 매우 수고스럽다'는 뜻으로, 험한 둔덕을 오르느라 말하기조차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 ㉡ '알리다'는 여기에서 '드러나다' 혹은 '느껴지다'의 의미로, 고개를 넘을 때마다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 자신의 나이(노쇠함)를 실감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지형이 아닌 인물의 상태이며, ㉡은 소문과는 관련이 없다.

③ ㉠은 이야기의 성격이 아닌 신체적 고통이며, ㉡은 타인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감한 것이다.

④ ㉠은 정신적 상태가 아니며, ㉡은 기억의 회상이 아닌 현재의 고통이다.

⑤ ㉠은 의미가 통하나 ㉡의 '연륜이 깊어짐'은 긍정적 뉘앙스가 강해 지문의 '노쇠 자각'과는 거리가 있다.

06 표현상 특징

정답: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세밀하게 제시하여 각 인물이 처한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 기법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윗글에서 인물의 외양 묘사는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런 꼴' 정도로만 간략히 제시될 뿐,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기 위해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이 작품의 핵심은 외양보다는 내면의 정서와 배경의 조화에 있다.

[오답 풀이]

① '소금을 뿌린 듯이',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등 비유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② 허 생원의 추억담을 통해 20년 전의 사건을 현재의 대화 속에 녹여내고 있다.

③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등 청각적 심상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⑤ 봉평에서 대화로 가는 길을 따라 시간과 공간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전개된다.

07 밑줄 설명

정답: ④ 땀을 흘린 뒤에 느끼는 밤 물의 차가움을 통해 인물의 감각적 경험을 강조한 것이다.

[출제의도]

특정 구절의 표현 기법과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 '뼈를 찔렀다'는 땀을 흘린 직후 차가운 개울물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강렬한 촉각적 자극을 과장법과 비유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이는 밤길을 걷는 장돌뱅이들의 실제적인 감각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오답 풀이]

① 과거와 현재의 괴리라는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문맥상 단순한 감각 묘사에 가깝다.

② 인물의 냉소적 태도는 지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③ '고독'이라는 관념적 의미를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⑤ 갈등 해소의 심리적 해방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체적 감각이다.

08 내용 이해

정답: ⑤ 동이는 충주집에서 저지른 실수 때문에 허 생원에게 꾸중을 듣고 부끄러워하며 사과했다.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⑤ 지문에서 허 생원은 동이에게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말게"라며 오히려 위로하고 있다. 동이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계집보다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자신의 처지나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게 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첫 문단에서 조 선달이 싫증을 낼 수 없었다고 언급된다.

② 허 생원의 대사 중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에서 확인된다.

③ 허 생원의 회상 중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에서 확인된다.

④ 조 선달의 대사 중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계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에서 확인된다.

09 전개 및 구성

정답: ① 인물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 변화를 통해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출제의도]

특정 구간의 서사적 기능과 인물의 관계 변화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① [A]의 시작 부분에서 '외줄로 늘어섰던' 나귀들이 '가로 늘어섰다'는 묘사는 인물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허 생원의 과거 이야기와 동이의 출생 내력이 교차하며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이 형성되는 과정과 조응한다.

[오답 풀이]

②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아니며, 갈등이 유발되는 구간도 아니다.

③ 과거의 사건은 갈등 심화가 아니라 인물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④ [A] 구간 이후에 대화가 중단되기는 하지만, [A] 자체의 주된 기능은 대화의 심화에 있다.

⑤ 시선 변화보다는 인물 간의 대화와 관계 형성이 주된 내용이다.

10 말하기 방식 분석

정답: ④ 허 생원은 동이의 젊음을 시기하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출제의도]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허 생원이 동이 같은 젊은 축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드러나지만, 대화 속에서 동이의 젊음을 '시기'하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동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팔자에 있었나부지"라는 표현에서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난다.

② "아무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렷다" 등 조 선달은 허 생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받아준다.

③ 허 생원의 이야기를 듣고 '실심해 한 끝'에 자신의 아픈 가족사를 고백하게 된다.

⑤ 조 선달은 가을까지만 일하고 전방을 차리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말한다.

11 화자의 정서 변화

정답: ② 달빛에 의한 감동 → 추억에 대한 애틋함 → 노쇠함에 대한 쓸쓸함

[출제의도]

지문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정서 변화를 추적한다.

[정답 풀이]

② 허 생원은 처음에 달빛에 감동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고(감동), 성 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을 "기막힌 밤"이라 회상하며(애틋함), 마지막에 고개를 넘으며 자신의 나이를 실감하고 젊은 동이를 부러워한다(쓸쓸함).

[오답 풀이]

① 현재 삶에 대한 자부심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지문의 주된 정서가 아니다.

③ 조 선달에게 미안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④ 정착에 대한 갈망은 조 선달의 정서에 가깝다.

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운명적 수용의 태도가 강하다.

12 소재의 기능 분석

정답: ④ 일상적 공간에서 벗어나 환상적이고 운명적인 인연이 맺어지는 공간이다.

[출제의도]

특정 공간이 지니는 서사적 의미와 분위기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물방앗간'은 달밤의 메밀밭이라는 낭만적 배경 속에서 허 생원과 처녀가 우연히 만난 곳이다. 이는 두 사람의 삶에서 가장 특별하고 운명적인 순간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작품의 낭만적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오답 풀이]

① 일탈이나 타락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② 처녀가 도망친 것은 그 다음날이며, 물방앗간은 만남의 장소일 뿐이다.

③ 두 사람의 인연이 짧게 끝난 것은 사실이나, 지문에서 물방앗간은 '한'보다는 '기막힌 밤'의 추억으로 묘사된다.

⑤ 두 사람 사이에 신분 차이에 의한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추론적 이해

정답: ④ 허 생원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단서를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의 정보를 종합하여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추론한다.

[정답 풀이]

④ 동이가 자신의 출생 내력을 밝히는 것은 허 생원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의 반응일 뿐, 허 생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노력한다는 묘사는 지문에 없다. 동이는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며 덤덤하게 말할 뿐이다.

[오답 풀이]

① 지문 후반부 동이의 대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② [A] 구간에서 허 생원의 위로를 받고 어조가 수그러지는 모습에서 추론 가능하다.

③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라는 대사에서 확인된다.

⑤ 고개를 넘을 때 허 생원이 동이를 부러워하는 대목에서 대비가 드러난다.

14 주제의식 파악

정답: ③ 과거의 인연이 현재로 이어지는 생의 신비로움과 혈연의 이끌림

[출제의도]

지문의 결론적 장면을 통해 주제의식을 도출한다.

[정답 풀이]

③ 허 생원의 추억담과 동이의 고백이 교차한 뒤, 두 사람이 함께 개울을 건너는 장면은 단절되었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생의 신비로운 인연과 혈연적 유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답 풀이]

① 고달픔이 나타나긴 하지만, 사회적 관심 촉구와는 거리가 멀다.

② 자연과의 조화는 배경의 특징일 뿐, 결말의 핵심 주제는 인물 간의 관계에 있다.

④ 옛 풍속에 대한 향수는 있으나 근대화 비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체념적 수용보다는 인연에 대한 경이로움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15 어휘의 문맥적 의미

정답: ① ㉠: 이번 일은 워낙 대근한 노릇이라 숨 돌릴 틈도 없다.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문맥적 의미를 다른 문장에 적용한다.

[정답 풀이]

① ㉠ '대근하다'는 '수고스럽고 힘들다'는 뜻이다.

① 번의 '대근한 노릇' 역시 힘든 일을 의미하므로 문맥적 의미가 일치한다.

[오답 풀이]

② '대근하다'에 성격과 관련된 의미는 없다.

③ '알려 오다'는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므로 지문의 '실감하다'와 다르다.

④ 정보를 전달하는 능동적 행위이다.

⑤ 현상이 인지되는 것이지만, 지문의 '나이가 알렸다'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스스로 깊이 실감했다는 주관적 자각에 가깝다.